

뉴스 분석
빨라진 대선 시계

차기 대선 1년 3개월 앞
여야 ‘친박’ ‘친문’ 지도부 구성
대세론 굳기 전·추석민심 겨냥
앞다퉂 대권 도전 선언 나서
제3지대론·플랫폼론도 주목

대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약 1년 4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았지만, 여야 대권주자들이 앞다퉂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일찌감치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여권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하고 있을 뿐, 공개적

“약무호남 시무大權”…잠룡들 광주 민심 잡기

〈호남 없이 대권 없다〉



문재인



안철수



손학규



김무성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인 움직임보다는 물밑 행보가 활발하다. 현재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나경원·정우택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의 양강 구도에 ‘잠룡’들이 잇단 출사표를 던지면서 야권 지형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새누리당 박근혜와 더

민주 비주류, 국민의당이 힘을 합치는 제3지대론과 여야 모든 비주류가 국민의당에 동지를 트는 ‘중간지대 플랫폼’ 등 다양한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야권 잠룡들 출마선언 잇따라=더민

주에서는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김부겸 의원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대선 경선 출마의 뜻을 비쳤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일찌감치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전남 강진에서 집거해온 손학규

전 대표가 2일 광주에서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발언을 하면서 야권 내 대권 경쟁이 한껏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28일 광주를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광주행과 더불어 손 전 대표, 안 지사, 김무성 전 대표 등 여야 대권 잠룡들이 대거 광주로 몰려들면서 주목받았다. 이는 야권 표심의 풍향계라 할 수 있는 광주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면서 사실상 대권 경쟁이 벌써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면으로 계속〉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강 굳히기에 들어간 KIA 타이거즈가 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경기를 하고 있다. 1회말 KIA 안치홍이 군 전역후 첫 타석에 나와 스윙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IA, 가을야구 보인다

롯데 4-3 꺾고 4위 굳히기…윤석민·김진우·지크·안치홍 등 복귀로 전력 업그레이드

광주에서 와일드 카드 결정전을 하겠다는 KIA 타이거즈의 ‘캡틴’ 이범호. KIA의 눈이 5강을 넘어 4강으로 향하고 있다.

KIA는 4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4-3 승리를 거두며 전날 1-2 패를 설욕했다. 이 승리로 KIA는 2경기차 밖에서 자리를

넘보던 LG를 3경기 차로 밀어내면서 4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0면〉

5강을 목표로 했던 KIA는 최근 4강을 말한다. 4일 투런포 포함 결승타까지 3안

타 경기를 한 이범호는 경기가 끝난 뒤 “연패만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을잔치에) 간다고 생각한다. 다른 팀 신경 쓸 것 없이 우리 팀 승률만 가지고 가면 된다. 광주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웃었다.

강화된 전력과 선수들의 의지가 4강의 원동력이다. 확장 엔트리가 적용된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윤석민, 김진우, 지크 등 마운드의 부상병이 전원 복귀했다. 지크가 1

일 선발 복귀전에서 승리를 신고했고, 김진우는 4일 불펜에서 2이닝을 삼자범퇴로 막으면서 승리 투수가 됐다. 또 윤석민이 노련함으로 불펜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임창용도 150km를 넘나드는 뱀지구의 부활 속에 철벽 마무리로 모습을 갖췄다. 타석에서는 안치홍의 복귀로 김주형·서동욱의 내부 경쟁이라는 또 다른 전력 업그레이드까지 노릴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자신감과 의지가 크

다. 8월23일 시작된 NC-삼성-두산과의 3연전이 가을잔치의 분수령이었다. 상대 전적에서 밀린 세 팀과의 대결이자, 불펜 과부하 속에 치른 3연전에서 KIA는 3승2패를 거두며 힘을 얻었다.

4일 김주찬이 보여준 주루 플레이도 최근 선수단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김주찬은 3-3으로 맞선 6회 1사에서 1루수 옆으로 타구가 빠지자 뒤돌아보지 않고 3루까지 내달렸다. 이어 이범호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경기는 4-3 승리로 끝났다.

이범호는 “주찬이가 3루까지 너무 열심히 달렸다. 어떻게든 쳐야겠다. 타점에 대한 욕심이 났다”고 결승타 순간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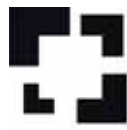
강적들과의 싸움에서 얻은 자신감, 가을잔치에 대한 간절함이 KIA의 4강을 예고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비엔날레 출발 ‘순조’

첫 주말 1만2천여명 관람

QR코드 이용 전시 해설도



‘2016 광주비엔날레’가 개막 후 첫 주말(2~4일)을 맞아 1만2000명이 다녀가며 순조롭게 출발

했다. 〈관련기사 2·16면〉

37개국 101작가(120명)가 참여해 252점을 선보이는 올해 비엔날레는 ‘제8기 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를 주제로 11월6일까지 펼쳐진다.

관람객들은 칸막이 없는 자유로이 배치된 작품 사이를 거닐며 여백과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도라 가르시아 작가의 ‘녹두서점-산자와 죽은자, 우리 모두를 위한’에 앉아 비치된 책을 읽거나 2전 시실에서는 누워서 영상 작품을 감상하기도 했다. 중외공원 일대에서는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화석연료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산책로를 거닐었다. 3전 시실에 배치된 앤드류 노말 월슨의 ‘탐구자들에게 바치는 송가’는 빠른 템포

음악, 현란한 영상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전시관 출구 옆에 설치된 애니 라이 군 원의 ‘오늘도 무지개’도 형형색색 상품을 배치해 매점같은 분위기를 형성하며 관심을 받았다.

참여형 작품도 호응을 얻었다. 아말리아 피카의 ‘서류 작업의 즐거움’ 옆에 비치된 A4용지에 도장을 찍어 보기도 했으며 레고로 만든 ‘Passt Leopard 2A7+’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작품을 만나는 모습도 보였다.

매 행사마다 방문했다는 이성욱씨는 “올해 비엔날레는 곳곳에 숨은 작품을 즐기는 매력이 있다”며 “다만 현안을 다룬 작품이 부족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비엔날레 관계자는 “산책하듯 거니는 편한 동선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전시가 입소문을 타면서 가족 단위 관람객과 학생 방문이 줄을 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택시에서 잃어버린 스마트폰

왜 못 찾나 했더니~ ▶6면

시대를 밝힌 노래

⑦ 8·15와 ‘우리의 소원’ ▶18면

세상의 모든 빛을 압도하는
눈부신 자신감
헤라 UV 미스트 쿠션

언제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울트라 미립 분산 기술이
한 번의 터치로 피부를 밀착케하며
들뜸없이 완벽하게, 더 촉촉하고 섬세하게-
건강한 윤기분류 피부를 선사합니다

HERA

◆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 www.hera.co.kr